

생동감 넘치는 조직의 힘으로, 빈곤과 차별의 벽을 넘는다



부산반빈곤센터소식지

최비름



76
2026. 1.

공영장례
단편영화
제작소
감독단문

여는 시 : 메마른 대지에 피어난 들꽃이 향기롭다
2025 사업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우정과 연대, '보듬다'를 마무리하며
회원탐방 : 임지훈
맛집탐방 : 팔갈국수 순례
길위에 소감

01 여는 시

메마른 대지에 피어난 들꽃이 향기롭다
| 시로쿠마

02 여는 글

2025 사업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우정과 연대,
'모듬다'를 마무리하며 | 최고운

03 표지이야기

공영장례 단편영화 제작단 참여 소감문
| 맹정은, 김상희 님

06 사진으로 보는

10 회원탐방

임지훈 | 편집팀

18 맛집탐방

팔칼국수 순례 | 김민수

20 활동소감

길위에 2025년 활동소감 | 김택수, 박은희

22 광고, 회계 및 활동보고

* 표지 사진은 12월 4일, 달품콘서트 단체사진입니다.

* 아래 사진은 같은 날, 단편영화 상영회 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사진 : 이인우 작가)



메마른 대지에 피어난 들꽃이 향기롭다

시로쿠마

바싹 메마른 땅 풀 한 포기조차 자랄 것 같지 않던
그 땅에 힘차게 싹을 틔운 작은 들꽃
쩍 갈라진 땅의 틈새를 비집고
스스로의 몸을 밀어 올리며
살아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침묵 속에서 뿌리를 내렸다

해가 뜨면 벌겁게 타며 불화살처럼 날아드는 띄약벌이
잎맥을 태우고
해가 지면 물기 없는 모래먼지만 섞인 공기가
숨결마저 말려 갔지만
들꽃은 스스로 지지 않았다
메마를수록 더 깊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뿌리를 뻗었고
시커먼 해충들이 찾아와
여린 줄기를 갉으며
꽃 피울 꿈마저 흔들어 놓을 때도
들꽃은 분노 대신 시간을 선택했다
상처 난 자리마다
다시 살아내는 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어느 날
고통이 더는 질문이 되지 않았을 때
들꽃은 조용히 꽃잎을 피워냈다.

견뎌낸 날의 무게만큼 품었던
진하고 깊은 향기
산들바람에 실리어 퍼져나가니
메마른 대지의 가슴을 메우고
지나던 이의 마음에
잠시나마 파스한 햇살을 건넨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
다만 살아냈다는 사실 하나로
메마른 대지에 피어난 들꽃이
이토록 향기로운 이유는
쉽게 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끝내 시들지 않으려
자신의 모든 시간을 살아냈기 때문일 테지

이 시는 힘든 시기를 거쳐 군무원으로
새출발하게 된 후배가 쓴 수필
「네 바퀴로 피워 낸 들꽃」을 읽고
쓰게 된 시입니다. 메마른 시간을 견뎠을
후배와 지금도 그 시간을 견디고 있을 아들에게
고생 많았다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 시를 전하고 싶네요.)

2025 사업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우정과 연대, '보듬다'를 마무리하며

2025년에도 센터는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고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1월 3일, 한 해의 시작을 시국토론회로 열었습니다. 탄핵집회에서 드러난 현상들을 짚어보고 계급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2차에서는 운동의 당사자들을 모시고 위험의 이주화, 이주민 혐오의 실태, 장애인권의 현실, 서면시장 투쟁의 현실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서로배움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센터의 핵심사업에 관한 회원교육과 3차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서로배움실천팀, 사회과학세미나팀, 편집위원회, 길위에도 각각 배움과 실천에 애쓰고 약진하는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4, 5기 42명을 양성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공동체 문화를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부산 전역 54개 장례식장에 대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론회에서 조문단원이 직접 발표했고, 대중적인 홍보를 위해 단원들이 직접 영화를 기획하고 촬영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모두가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협동과 연대를 배우고, 더 깊이 있게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그러하듯이 연말에는 달품콘서트라는 고유의 이름으로 후원행사를 열었고,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만든 공영장례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같이 만든 감독, 배우, 스태프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동참하셔서 더욱 빛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 제작과 상영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관련 소감문이 바로 이어서 있으니 애정 갖고 살펴봐 주세요.

공영장례 관련 활동이 이만큼 가능했던 이유는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사회복지연대, 영화속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법률사무소시소의 활동가분들이 연구팀에 성실히 결합해서 힘을 보태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임기현 활동가님의 열정적인 교육과 언론홍보도 큰 힘이었습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만들고 조문단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의 규모를 키우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보다 초심으로 돌아가, 작더라도 진정성 있게 사회운동으로써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욱 반빈곤답게 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운 대표>

공영장례 단편영화 제작단 참여 소감문

‘늦은 화해’팀 조연출 맹정은 님

늦은 밤 10시 30분, 주인공이 가부장적인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화해팀’의 첫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촬영은 단편영화 ‘늦은 화해’ 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떠났지만, 아버지를 찾아서 화해하는 과정을 여는 장면이기 때문이지요.



그보다 이틀 전인 9월 28일 대본리딩으로 출연진들 대부분이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특별히 이주언 변호사님이 소송지원 했던 공항난민 청년과 동행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영장례 시민 조문단의 세계화를 다짐하였어요. 첫 촬영 중 길을 지나던 청년 강 배우를 주인공 오빠 역할로 섭외하여, 다음 날 두 배우가 첫 대면에서 먹살 잡고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우연성과 긴장감은 촬영을 종료할 때까지 조연출인 제 마음을 지배하던 정서였습니다. 세 번째 촬영일인 10월 2일은 영락공원의 숨은 명소 메타세쿼이아 길을 발견하여 멋진 야외 씬을 촬영했고, 안 자매의 열연에 감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촬영날 주인공이 일하던 ‘강원식당’에서의 촬영도 맛있었지요. 식당 부부 사장님, 손님으로 출연해주신 봉 감독님 지인분들과 최종철 님, 안 자매님, 이주언 변호사님과 둘째 따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날, 불친절한 형사를 맡기에 목소리 출연만으로도 선함이 드러나서 NG 요정이 될 뻔한 김택수 배우님, 복장까지 완벽 구비해온 안 배우님, 반사판의 정석을 보여준 기현 님 덕분에 경찰서와 사무실 장면도 오케이!

은은한 미소로 친절한 공무원 역할에 적격이었던 류 배우님의 외로운 촬영, 가톨릭대 구석구석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윤 배우님은 애드립으로 승부하시다가 화해팀 ‘NG 요정’이 되셨답니다. 대사가 이리 많은 역할인지 몰랐다면에서도 생활 연기를 보여주신 방 배우님, 대본에 충실하며 차분하게 연기하신 이주언 배우님 덕에 봉안당 장면이 채워졌습니다. 봉 감독님의 디테일을 확인한 김민수 님, 슬레이트 맡아주신 최고운 님, 무엇보다 집을 흔쾌히 협찬해주셔서 아버지와 오빠와 주인공의 핵심 갈등 장면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안미경 님 덕분에 주요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지요.

화해팀, 시간팀, 만남팀 세 팀의 촬영을 약속했던 10월 18일, 화해팀은 배우들의 소진상태로 촬영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구원자로 손석주 대표님, 수녀님, 김상희 감독님, 그리고 박

주미(조문단 3기)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중요한 장면의 배우에 임해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조문단이 가지는 연대의 힘과 애도할 권리가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클라이맥스이자, 즐거운 장례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몸을 사리지 않은 방 배우님의 열연이 돋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 출연한 주인공 전주현 배우는 직장과 부모님 가게를 돕는 와중에 많은 시간을 내어 연기연습도 개인적으로 하며 전체 촬영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공영장례 조문단 덕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늦은 화해’를 하게 되는 당사자 역할로서 회한과 후회,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교차하는 감정을 다채로운 표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감정은 포스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고, 전주현 배우도 본인을 비롯하여 직장동료들과 가족들이 공영장례 조문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해결책을 매번 찾아내며 시나리오 구성부터 촬영과 감독까지 다 해내신 최고 능력자 최종봉 감독님의 꼼꼼함은 봉테일에 버금했습니다. 단편영화의 A부터 Z를 넘어서 까마귀 길들이기와 세 편의 영상편집까지 완성한 이연승 감독님은 감동입니다.

공영장례 조문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단편영화 제작은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 분명한 무연고 사망자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해준 우리의 선배 시민이자 선배노동자이며, 지금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앞으로는 혈연 가족보다는 사회적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서로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조문단 양성과정에서 배운 것으로 그린 밑그림에 조문 활동의 경험으로 그 그림을 채우고 있습니다.

‘만남은 우연이고, 인연은 노력이다.’라는 문장처럼, 공영장례 조문단으로 우연히 만났고, 각자의 노력으로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이 이번에는 ‘단편영화’라는 형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단역배우로, 또 조연출로 참여한 시간들이 의미 있고 즐거웠습니다. 이번 제작 과정에 힘을 보태면서 조문단 개개인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 12월 공영장례 단편영화 상영회까지 노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최고운 대표님과 이연승 감독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만남’팀 연출 김상희 님

벌써 작년이 되어버린 2025년이라니, 아직 새해가 밝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 실감이 나지 않는다. 2025년이 ‘작년’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바로 12월이다. 모든 해의 마무리는 12월에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 그런 원칙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한 해를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려고 애쓰



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막상 혼자서 의미 있는 일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혼자 하는 일의 의미추구는 주로 개인적인 취향 놀이일 뿐,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돌아볼 만한 사회적 의미나 가치는 없다. 그런데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의 단편영화 제작 프로젝트는 딱 첫 눈에 봐도 의미 있는 결과물을 기다리는 12월의 맞춤 도전이었다.

나는 2025년 4월에 공영장례 조문단 교육을 받고 조문을 다니기 시작했다. 길치, 방향치인 내가 부산 곳곳의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주로 냉정한 사회현실에 주눅 들어서 ‘이제 절대 가지 말까’, ‘고인이 어려서 꼭 가봐야겠어’ 혹은 ‘이렇게 더운데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외면해’와 같은 갈등이 반복되었다. 시민권이라든지 공공의 책임 같은 사회적 이슈는 와닿지도 않을뿐더러, 그 분야의 활동가들이나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했다.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러했다.

먼저, 시나리오를 쓰면서 든 고민은 내가 ‘이 제도에 완전히 공감하는가’였다. 나의 공감이 우선되어야 이 제도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되어 이야기로 표현되고 영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에게 공영장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내 가족’의 문제라는 걸 알릴 수 있다. 공영장례를 언론보도로만 접한 사람들은 예전의 나처럼 ‘내 일은 아니다’는 거리감을 두고 있다. ‘불쌍하다’는 감정은 있지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감정적 공감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얻을 수 있는 조문단 이야기를 쓰기로 하였다. 시나리오 완성 후의 나의 자세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조문단이 곧 배우인 우리 스텝은 실전에서 이미 많은 걸 느꼈고 경험했다. 따라서 연기할 때 필요한 감정은 이심전심으로 공유되었고, 몸으로 표현하는 연기라는 형식만 연습하면 되었다. 각자의 본업 동안은 각개전투를 벌이다가 영화라는 협업을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배려하며 연대하는 모습이 고맙고 아름다웠다. 연기에 몰두한 한 조문단이 옷자락에 촛불이 붙은 걸 모르고 있다가 옷 위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야 다같이 소리 지르던 순간은 아찔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그 불길에 아연실색하던 스텝들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다.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도 보았고, 돌처럼 굳어버린 내 모습도 있었고, 불을 꺼야겠다고 허둥대던 모습도 보았다. 그야말로 영화촬영 과정은 동고동락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촬영이 끝나고 시작된 파일 정리와 편집 기간은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생각해보면 내 욕심 때문이었다. 조문단을 알리는 소박한 목적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마추어인 내가 사실은 완성도를 욕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촬영 파일 대부분을 엔지(NG)로 묶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다행히 달품에는 겸손한 지도 감독이 있었고, 그는 휴지통에 있는 파일들의 가치를 내가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영화의 완성을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나의 12월은 2025년을 돌아볼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었던 한 해로 마무리됐다. 이런 기회를 준 반빈곤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다 달 포 콘서트

콘서트X공영장례 단편영화 상영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아직 후원을
못하신 분은

후원계좌 부산은행 101-2043-6389-04

정기후원 bit.ly/bapc2017

2025달포콘서트에 참여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조명, 음향, 사진에 배석훈, 이연승, 이인우 님, 입구 안내를 도와주신 안미경 님,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 끝에 단편영화를 완성한 최종봉, 임지훈, 김상희 감독님! 감독님들의 가족, 지인 분들이 총출동 하셔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
이야기손님으로 함께해 주신 전주현, 김민수, 류지아 님. 매번 공연으로 함께해 주시는 두드림인형극단의 윤희배, 박은희 님. 연습, 준비, 공연까지 그 누구보다 많이 애써준 우리 길위에 멤버들!!
대연우암공동체, 내미는마음 주민 분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ICP 강성영 강찬주 김규명 김길후 김상희 김성진 김수미 김옥자 김인수 김정연 김종환 김지현 김채삼 김태수 김향남 남보리 남은우 대연우암공동체 류지아 맹정은 박도홍 박수정 박은희 반종석 배인영 빈곤사회연대 사랑방마을주민협동조합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손석기 손화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오상환 왕승민 이성태 이수경 이연승 인형극단두드림 임정수 임지훈 임현주 전소현 전승욱 전주현 정민정 정상규 정흥석 제청란 조병준 조은별 조은영 조재화 천연옥 참여 최종봉 함이로 훌리스행동 흥슬민 황수연



다 리 포 모

콘서트X공영장례
단편영화 상영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후원을
못하신 분은



후원계좌 부산은행 101-2043-6389-04

정기후원 bit.ly/bapc2017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11월 19일 공영장례 단편영화 상영회를 앞두고 내부시사회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다같이 영화 완성작을 보는 날이라 조금 긴장도 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있었고요, 상영 후에는 돌아가며 소감나누기도 했습니다. 달품콘서트에 못오셔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있으니 한번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월 22일엔 송년회 겸 평가회의를 했어요.

이날 방진숙 선생님이 케익을 사오셔서 훈훈한 분위기에 같이 케익에 초도 붙었습니다!



▲ 매번 공유를 다 하진 못하고 있지만 1~4기 조문단원들은 텔레그램 실시간 알람을 보고 소통을 하면서 각자 가능한 시간, 장소에 공영장례 조문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공영장례 단편영화
'만남' 유튜브로 보기→

채비학교2

죽음이론과 다양한 애도의 방식, 대안적인 장례와 추모제에 대해서 배워보았던 채비학교에 이어서 11월 3일, 직접 '생전 장례식'을 치러보는 채비학교2를 진행했습니다. 영화속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님의 생애와 활동을 돌아보고, 좋아하는 소곡으로 추모식을 꾸미고 생애사를 담은 시낭송, 협의회 회원 분의 하모니카 연주까지... 죽음이 아닌, 삶을 돌아보고 보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연결한다



11월 12일 외국인청 앞에서 정부 합동단속으로 희생된 이주노동자 두안 님 추모미사가 있어 동참했습니다.



2025 달품콘서트

준비로 너무나 고생 많았던 길위에

12월 24일,
서면시장 문화제!

크리스마스이브를
따뜻하게
채울 수 있었던



(사진: 정남준 작가)

콘서트를 한달 앞두고~
매주 연습을 했습니다
30일엔 송년회 :)



12월 23일 420부산공투단 집회 참석



11월 8일 영화속재생원 피해사망자 위령제



11월 26일과 12월 24일, 영화속재생원 피해 국가손배소 방청을 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많은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와중에 크리스마스라고 손석주 대표님과 방진숙 선생님이 선물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

#서로
배우고_모두
성장한다

서로배움실천팀은 월에 한번, '시민참여실천연구'를 함께 읽었는데요. 11월 13일 책걸이를 하고, 12월 20일 송년회를 했어요. 수년간 프레یری 이론을 공부해 왔는데요~ 12월 모임을 끝으로 발전적 해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공부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 뭉치자 했고요 ;)



(위) 12월 19일 (아래) 11월 14일 ▶ 사회과학세미나 2~3주에 한번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평의회'를 읽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와인파티를 겸해서 즐겁게 진행했고요. 2월 7일(토) 오후 3시, 달품에서 과거 윤동태 동지와 평의회 운동을 함께한 분들을 초대해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임지훈



12월 9일 저녁, 공간달품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별도의 이름 표기가 없는 질문은 최고의 대표가 한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부산반빈곤센터는 7월에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5기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고, 최근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영회를 직접 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면서 영화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밀) 지훈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자기소개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저는 대안 가족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찍은 다큐가 가족에 관한 거였는데, 반빈곤센터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정상적, 규범적인 가족 그걸로는 다 포괄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생각 중이고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영화 작업도 그런 주제를 조금 더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얘기하셨던 영화 이론 쪽으로 대학원 가는 게 아니고 사회학 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제가 알고 싶은 분야가 사회학이나 인류학 쪽이고, 제 방법에도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센터에서 같이 찍은 '시간이 없다'도 사실은 영화라는 매체보다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찍느냐 그런 게 훨씬 중요했거든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야 하고 공영장례를 알려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제 목표는 같이하는 회원분들을 아는 것이었고,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사회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 안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사회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제 관심사는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했을까, 개인이 타고난 걸까 아니면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게 궁금한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네, 호기심이 큰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을 바꾸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알고 싶은 거죠.

이번에 '시간이 없다' 영화 제작하면서도 느꼈지만 감독님들마다 특성이 다 있었어요. 저도 이걸 통해서 홍보하는 목적이 컸고요. 근데 사람을 알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했다는 게 과정에서도 많이 티가 났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우선 저의 첫 번째 영화 ‘유령’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제가 제도권 밖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었어요. 작품을 찍으면서 느낀 게 ‘대상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영화는 그냥 수단이고 매개일 뿐이고요.

예를 들면, 배우나 스태프들의 상태나 안전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캐릭터나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작품 밖의 ‘그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큐는 그게 좀 혼재돼 있어서요. 극영화는 확실히 그 사람을 아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테이크¹⁾도 길게 안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메릴) 의외인데요. 저는 다큐가 오히려 그 대상과의 관계성이나 그 대상의 서사가 더 중요하고 극영화는 플롯이나 감독의 의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대라고 얘기하셔서 조금 더 얘기 듣고 싶어요.

저는 다큐(‘유령’)에서 했던 방식을 극영화에서도 그대로 적용했죠. ‘시간이 없다’는 극영화지만 각본만 있고 터치하려고 한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이걸 했을 때 잘했을 것 같다’는 예상 정도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장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의 방식대로 다큐도, 극영화도 비슷하게 촬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메릴) 약간 홍상수식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올해 처음 영화를 배우셨고, 김정근 감독과 워크숍을 하면서 ‘유령’이라는 첫 다큐 작품을 만든 거죠. 언제부터 영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적은 사실 없었어요. 영화 보는 걸 좋아했고 저는 관객으로서의 그 포지션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위계가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관객으로서 더 잘 보려면 창작자의 기본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죠.

(메릴) 말씀하신 창작자와 그리고 관객 사이에 위계가 없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다른 장르도 아닌 특별히 영화라는 수단을 택한 걸 보면 애정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영화 좋아하죠. 방금도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영상 작품 보고 왔습니다. ‘영화 이후’라는 주제로 영상 작업이랑 영화 관련 포스트 시네마 그런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좋은 감독이라면 좋은 관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관객 쪽에 더 애정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연승)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고 작품 활동을 이해하고 싶어서 워크숍 들어가신 거잖아요. 분야로 보면 촬영, 비평도 있고 그리고 장르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다큐 과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임지훈 감독님 영화관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1) 한 장면을 반복해서 찍는 횟수를 말함.

비평은 영화의전당에서 2019년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뒤 코로나와 군대를 겪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다큐멘터리로 가게 됐죠. 다큐멘터리를 왜 선택했냐를 얘기하려면 관객으로서의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서면CGV 아트하우스라고, 예술 영화를 트는 데가 있어서 보다가 영화의전당 쪽에서 고전영화를 보게 됩니다. 막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는 그냥 표가 싸서 봤습니다. 보다가 점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죠. 그리고 핵심은 다큐가 극영화보다는 더 작은 규모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극영화는 제작비를 n분의 1로 해도 최소 50~10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고요.

시작은 그랬고요, 다큐든 극영화든 제가 생각하는 주제를 잘 담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작의 측면에서 예측이 잘 안되는 다큐의 방식이 제게 좀 더 재밌는 거 같아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딱히 아니고 있다면 군대 때였어요. 그때 할 게 없으니까 현대 프랑스 철학을 공부했었거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군대를 보니까 이런저런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안 맞는 사람이 진짜 많은 곳이 군대인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그런 것에 관심 가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까?

이해하게 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고요.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는 정도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옳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 사람이 겪었던 배경이나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저런 삶의 과정이었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메릴) 맨 처음에 대안 가족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 궁금해요.

그거는 일단 제가 이혼 가정이었기 때문에 기존 가정 형태에서 조금 잘 벗어나 다른 쪽에 관심을 갖기 쉬웠던 것 같고요. 이상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가족끼리 싸우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가족이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든 다양한 이유로 결혼 못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생활동반자법²⁾에도 관심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가능성을 본 건 부산반빈곤센터인 것 같아요. 다 개개인인데 제가 느꼈을 때 서로가 잘 연결된다고 느껴서 이거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확실한 대안 가족 모델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주 큰 그림을 갖고 계신데, 혹시 조문단 5기 신청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2)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전제로 하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실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말한다(출처 : 다음백과).

그때도 대안 가족은 관심 있긴 했었는데, 그때는 반빈곤센터인지도 몰랐고 또 어떤 곳인지는 모르고 그냥 참여했죠. 조문단과 대안 가족을 연결할 생각은 그때는 못했죠. 나중에 제가 기술을 좀 더 익혀서 반빈곤센터 다큐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너무 좋은데요. 기술을 꼭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려면 기술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화들은 제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기술 없이 찍었고, 사실 제대로 못 찍어서 좀 아쉽죠. 심지어 인터뷰도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찍다 보니 다큐 특성상 두 번 이상 찍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유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제를 정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참여한 게 다큐멘터리 워크숍이었는데 그때도 아빠를 주제로 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처음엔 휴먼 다큐 그런 느낌으로 아빠와의 추억의 장소를 돌아보자는 거였는데, 아빠가 거주 불명자인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뒤 보는 시각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처음 의도와는 많이 달라진 거죠?

그대로 안 됐죠. 많이 벗어났죠. 다큐를 찍던 도중에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을 시작했는데 조문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도 이 영화를 공영장례로 연결시켜서 사회적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빠를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빠를 만나버려서 결말이 확 바뀌었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조문단 교육도 받았는데 혹시 나중에 아버지를 못 찾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서 연락이 오는 상황도 어찌면 있지 않을까... 근데 만난 건 잘 된 거겠죠?

어쨌든 한 명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면 좋은 거죠.

어렸을 때 헤어진 아버지를 찾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기를 내게 되셨을까요?

이때까지 다 대상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좀 상반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영화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게 어떤 용기가 되긴 했어요. 일단 카메라를 들면 약간 용기가 생겨요. 그 목적함이 주는 용기가 있거든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걸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못 찍는다고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밀) 대안 가족이라는 말이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고 특정한 하나의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센터에서 경험하신 것들이 도움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인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공영장례 조문 활동 자체가 가족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빈소에 가면 무연고자분들과도 연결된다고 느끼고, 조문단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끝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게 어떤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목적이 일도, 돈도 아니고 또 다른 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가능성을 보게 한 거죠.

그런 관계는 예를 들면 친구 관계, 연인 관계도 있는데 지훈 님이 느끼기에 이 조문단 활동이 다른 측면

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 관계들도 물론 소중한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폐쇄적인 것 같은데 공영장례 관련된 이 활동들은 조금 더 느슨하고 더 누구든지 접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시민'을 강조하잖아요. 조금 더 폭넓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시민들의 권리, 느슨하고 지속적인 관계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아주 생각지 못한 다양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유령으로 돌아가서 유령을 만들 때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촬영이 처음에는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편집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야 편집을 하는데... 제 감정이나 그런 게 잘 해석이 안 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내 감정을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건가요?

장르가 다큐멘터리 내에서 '사적 다큐'라고 제 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 감정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너무 여러 감정이 각각 존재하는데 어느 것에 집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게 정확히 내 감정이고 더 드러내야 할 감정인지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편집이 매우 힘들었는데 그때 김정근 감독님이 잘 잡아주셨죠. 사실 되게 쉬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봐야 할 거를 조금 더 잘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전적인 이야기니까 감정을 좀 더 잘 드러내면 작품에 더 이롭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이연승)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드러내면 의도가 뻔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절히 주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가족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의 감정도 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김정근 감독님이 그러면 관객들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주셨고 편집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했죠.

(이연승) 그러니까 다큐라는 특성상 가족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얘기가 필요하단 뭐 그런 얘기군요.

(떼밀) 가편집본은 일기에 가까웠다면 완성본은 조금 더 이야기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그런 애긴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편집본은 저를 위한 거였는데, 완성본은 그래도 다른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설득이 가능한 방식으로 편집을 한 것이죠.

그래요. 정말 설득되고 말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주 몰입했고 빠져들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편집에서 어느 길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힘들었다는 것 같네요. 저는 촬영 도중에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였다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촬영을 포기했을 것 같은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되게 짧은 것처럼 편집했지만 사실은 그 사이사이 시간이 많이 있었고, 땀을 많이 흘려서 옷 갈아입으려고 집에도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추스를 시간이 있었고요. 이거는 영화를 찍어야 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찍어온 순간들이 있고 핵심이 남았는데 그걸 못 찍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이게 엔딩을 좌우할 핵심적인 촬영이다’ 하는 느낌이 온 거예요?

네, 이거 찍으면 이제 더 찍을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인데 마음을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영화도 너무 중요한데 지훈님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은 되니까요. 그냥 아빠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도 거주 불명자보다는 어쨌든 아빠가 살아있는 게 더 나은 거니까. 그 영화 속에 나오지만 할머니 집에 오자마자 아빠가 가자는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도 뭐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집으로 보냈거든요. 그때는 좀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매필) 그런 감정들이 영화 작업 통해서 좀 변하기도 하고 수그러들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아빠도 IMF 겪고 할아버지가 사업 망하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아빠까지 포용해야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 제가 바라는 사회로 가는데 약감정을 갖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결국은 아빠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 편집을 하면서 잘 가다듬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갔죠. 용서하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선 복수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이 강하지 않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볼지를 내가 완전히 정하는 거니까.

만약에 용서를 끝내 못했다면 영화 완성하기 힘들었겠죠?

영화 못 만들었죠. 지금 계속하고 있었겠죠.

(이연승) 세월이 좀 오래 지나서 지훈 감독님이 아버지가 돼서라도 이 2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엄마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아도 둘 곳도 없다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한테 했거든요. 그러면 상 버리는 거부터 유령2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김민수) ‘시간이 없다’는 다큐는 아니지만 찍는 방식은 다큐적인 걸 추구했잖아요. 어찌보면 다큐랑은 좀 안 어울리는데 독백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차별화를 위해서 일부러 넣은 것인지?

저는 다큐멘터리에서도 독백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차별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객이 접할 때 대사보다 표정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극영화 감독으로서 충분한 역량이나 자원이 있었다면 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관객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생각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김민수) 우리가 그날 더 찍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뺀 부분도 있습니다. 뺀 때 많이 고민되거나 아깝진 않았나요?

아깝긴 한데 보면 너무 쓸 수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해서 별로 선택지가 없었어요. 조명이 너무 이상해서 몰입을 깰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가 안 좋다 보니까 빛을 제대로 못 잡고 유령의 첫 장면처럼 찍히는 거예요, 자글자글하게.

촬영날 모니터했을 땐 웃으면서 봤는데 완성본을 보니 민수 씨가 연기한 수민이 차 안에서 생각하는 장

면이 되게 비중이 큰 장면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이연승 감독님과 두 분의 협업은 어땠습니까?

후반 작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폰으로 하면 음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 걸 잘 잡아주셨죠. 색 보정도 잘 됐고요.

이후에 이 두 영화를 다른 영화제 같은 데 출품할 계획이 있으세요?

‘시간이 없다’는 관계가 훨씬 중요했던 작품이라서 따로 출품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유령’은, 다음 작품을 할 때 영화제 이력도 중요하다고 들어서 여기저기 출품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을 받으면서 약간의 인지도와 권위가 생긴 거잖아요?

당장은 조금 있긴 한데 저는 이걸 금세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 쪽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다음 영화를 같이 할 동료, ‘누구랑 같이할 것인가’입니다. 좋은 동료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동료가 단순히 내 영화를 같이 만들어 줄 스텝 이걸 넘어서서 같이 뭔가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연승) 이제 앞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굳이 장르를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작업으로 열려있다고 봐도 되겠죠.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상을 잘 담을 수 있는 매체면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제약 없고 어떤 매체를 특권화를 절대 안 하려고요.

지금 다음 작품도 생각하시잖아요. 혹시 생각해 둔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찍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공영장레나 무연고자, 대안 가족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될지 방식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좀 공부를 하고, 기술적인 것도 조금 배워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유령’은 이미 소재에서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무연고자나 대안 가족은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죠.

그런 걸 누가 심어준다고 되는 건 아닌데 대상에 대한 존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연승) 이번에 부산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 심사위원상 두 개나 받으셨고 특히 관객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객들 수준이 높다고도 느꼈는데요. 임지훈 감독님은 관객상을 더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심사위원은 3명에서 뽑은 거고 관객상은 관객심사단 8명이 뽑은 거라... 그런 건 있죠. 근데 두 상이 상을 준 이유가 다르대요. 심사평을 보면 관객 심사 쪽은 소재를 장점으로 봤고, 그 심사위원분들은 대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좋게 본 거라 각각 다른 이유에서 기분이 좋죠. 저는 더 큰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기쁨에 도취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더 내실을 다져서 잠깐 열린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고 생각합니다.

(이연승) 임지훈 감독님은 대상과 그 대상이 살고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깔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가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매체를 다양화하는 것도 너무 좋은 선택이고요. 그렇다면, 매체의 다양성을 넘어서 나중에 학자나 사회복지사, 장애지도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계신가요?

가능성은 다 있죠. 그 분야에 제가 들어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영화도 그랬거든요. 좋겠다 생각해서 장면들을 붙여봤는데 막상 안 좋아서 빼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좀 느리게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오래 봐야 알 수 있고.

(이연승) 가장 좋아하는 영화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이번 영화에 영향을 미친 장윤미, 이강현이라는 감독이 계세요. 이분들께는 기법적인 거나 사회를 보는 방법을 배웠고요. 김준석 감독의 ‘그래도 사랑해’라는 영화가 있는데 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이 부족한 시대에 사랑을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독특한 점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극화를 시켰고 스스로 배우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한 점입니다. 가족도 출연하고요.

(매밀) 부산에 계속 사셨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이 감독님에게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부산을 오래 살았지만 잘 몰라요. 이번에 아빠와 관련된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영화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산에서 제가 몰랐던 곳을 가보는 계기도 됐어요. 영도는 진짜 처음 가봤고요. 흰여울마을이 예쁘지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폐가나 임대 붙어 있는 그런 건물들도 많잖아요. 상품화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동시에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죠. 안창마을은 제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인데 ‘유령’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인 것 같아요. 충격받기도 했고요. 주민들 간의 끈끈함, 하루만에 소문 다 퍼지고 그런 게 새로웠죠.

사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 안창마을이 아니었다면 결말은 또 달랐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아빠와의 그 관계성을 드러내지 않고 공영장례를 좀 더 부각할 생각도 있었어요. 아빠를 용서하게 된 건 그분들이 저를 잘 대해주셨던 그 영향도 있었죠. 아빠를 찾은 것도 그분들의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따뜻함을 배신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감독님은 앞으로 꼭 영화가 아니라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건가요?

해결보다는 제가 대상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바꾼다고 바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이런 작은 스텝들이 모여야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민수) 요즘 ‘공간힘’에서 진행하는 자본론 강독에도 참석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회과학세미나도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 영화 찍으면서 사회과학에 관심이 생긴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건지요?

원래 관심이 있긴 했었는데, 경험이 많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노동조합 중요하지’ 그런 정도였는데요. 최근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도 직접 뵈기도 하면서 더 구체성이 생겼죠. 제가 중학생 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퇴진 투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됐고, 영화도 보고 다큐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궤적으로 온 것 같아요.

반빈곤센터 회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죄책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느슨하지만 길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근데 저는 희생보다는 같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 최고운>



▲공영장례
단편영화
‘시간이 없다’

팔칼국수 순례

어린 시절의 겨울철 추억을 떠올리면 늘 잊을 수 없는 음식 하나가 있다. 바로 팔칼국수다. 너무 맛있어서 그날은 생일 다음으로 좋은 날로 기억된다. 팔칼국수는 주로 호남지역에서 먹던 음식으로 경상도 지역에선 조금 생소할 수 있다. 육수 대신 팔죽을 사용해서 먹는 칼국수이며, 가게별 특성에 따라 팔죽 위에 칼국수를 첨가하거나 맑은 팔물에 칼국수를 같이 넣고 끓이는 등 방식은 다양하다.

오늘은 그 추억의 음식인 팔칼국수 탐방을 떠날까 한다. 전라도 지역은 음식 맛있는 곳이 워낙 많아서 그중에 몇 군데 가게를 순례하듯 떠나볼 참이다. 공통점은 모두 시장을 근거지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읍 연지시장 ‘마루팔죽’

여기는 40년 넘게 장사하신 할머니께서 직접 팔을 끓이는 곳으로, 일단 김치가 정말 맛있고 푸짐하게 주신다. 서울에 있는 자제분이 ‘제발 음식 너무 많이 주지 마라’며 핀잔할 정도로 많이 주는 편이라고 한다. 팔칼국수의 맛은 면발이 정말 쫄깃하고 완벽에 가깝다. 이걸 이태리 로마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먹는 파스타 면의 질감과 똑같다. 전라도의 시장에는 이런 대단한 숨은 고수가 많다. 참 놀라울 따름이다. 그리고 정읍은 전라도지만 충청도랑 가까워서 구수하고 재미난 표현이 많다.

그날도 가게 손님과 주인의 대화가 참 재미있었다.

“팔뚝엔 뭘 하얀 걸 붙이고 땀기는겨?”

“뭘 붙인 게 아니고 난로에 옷이 타서 속옷이 보이는겨”

“아따~ 따땃혔것네”

광양오일장 ‘광양장터국수’

광양오일장으로 왔다. 1980년도부터 장사하던 곳이다. 여기는 커다란 솔단지에서 팔죽이 쉬지 않고 끓고 있으며 거기에 칼국수면을 담아주는 곳이다. 팔은 질감이 매우 거칠고 자연 그대로의 씹히는 맛이 있다. 면은 좀 퍼진 듯한 면으로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좋은 식감이다. 그리고 여기는 팔칼국수를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솔단지 앞에 가서 좀 더 달라고 하면 팔칼국수를 다시 한 그릇 가득 채워주신다. 지상 최고의 인심에 혀를 내두른다.



여수서시장 ‘어머니 죽집’

여긴 함께 나오는 깍두기와 숙주나물이 기묘하게 맛있다. 팔칼국수집이 이렇게 찬이 맛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별미다. 하지만 면발은 툭툭 끊어지고 팔은 묽은 편이다. 그리고 녹두죽도 파는데 평범하다. 하지만 찬이 너무 맛있어서 이유를 알고 보니, 가게 맞은편에 있는 반찬가게를 함께 운영한다. 특유의 전라도 찬맛이 일품이다.



여수서시장 ‘소문난 칼국수’

여수는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진정한 미식도시라서 한군데 더 가봤다. 맛이 상당히 정제된 맛이다. 팔칼국수의 면발과 팔죽의 질감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다. 오래 면을 만져왔는지 면의 식감은 그야말로 미술랭 원스타 파스타집 수준이다. 면발은 제면기로 뽑는 타입이라 일정하고 김밥이랑 잡채 등도 같이 시켜보면 별미다. 그리고 이 집은 팔칼국수보다 녹두칼국수가 더 맛있었다. 녹두칼국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별미다.

곡성기차마을오일장 ‘고향 팔죽’

여기는 28년간 팔칼국수를 해온 집으로 필자가 어릴 적 먹던 팔칼국수의 원형이 그대로 있다. 제면기로 뽑은 면이 아니라 손으로 문지르고 식칼로 자른 면발이다. 특유의 굵직한 면과 얇은 면이 공존한다. 어떤 이들은 일정하지 못한 식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굵은 면의 통통 튕기는 식감과 얇은 면의 부드러운 식감이 공존하는 것은 또 다른 별미가 된다. 다양한 식감이 오히려 재미난 맛이 되고, 이게 바로 어머니께서 어릴 적 썰어주시던 바로 그 맛이어서 더 묘하게 맛있었다. 여긴 소금간을 미리 해줘서 따로 간을 할 필요는 없고 식성에 따라 설탕을 첨가해도 된다.



전국투어 하듯 팔칼국수집을 둘러봤다. 돌아다니며 어릴 적 먹던 맛을 떠올리는 즐거운 순간이었다. 팔칼국수는 전라도 출신의 부모님 덕에 늘 겨울철을 함께해왔던 음식이고 추억의 음식이다. 솔단지에 따뜻한 김이 팔향과 함께 올라오고, 잘 익은 면과 함께 그릇에 담긴 그 추억이 너무나 그립다.

접근성 및 주소 안내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는 특성상 주소로 특정하기 어렵고, 각 시장 내에서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은 다 되지만, 가게는 대체로 협소하고 광양오일장과 곡성기차마을오일장은 너른 장터 내에 있어서 접근이 쉽습니다. <김민수 운영위원>

★독자퀴즈★

김민수 위원이 이번 호에
탐방한 음식은?

**010-5135-7957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 있음^^)

길위에...

처음 그 이름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낯설었지만 익숙했던 그 상반된 느낌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차게 때로는 비장하게 그리고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노래하기 위해 연습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의 실력자처럼 아주 듣기 좋고 아름다운 음색은 아니었으나 진심이 가득 담긴 조출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해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2025년은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내란 세력의 척결은 결국 또 한 해를 넘겨야했고, 고물가에 우리네 서민들의 등은 굽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밝아온 2026년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손 잡고 절망을 벗어나 희망을 노래하고 함께 길위에 서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투쟁!!!

〈김택수 위원〉

* 길위에 멤버로, 또 운영위원으로 늘 곁에 함께하시는 김택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

아무도 찾지 않던 다음 카페 <부산 반빈곤센터>에 매일 아침편지를 남겨주셔서 요즘은 덕분에 아주 따뜻한 소통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그 아침편지들을 소개 할까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사진 : 이인우 작가)

길위에 활동을 한지도 2년 남짓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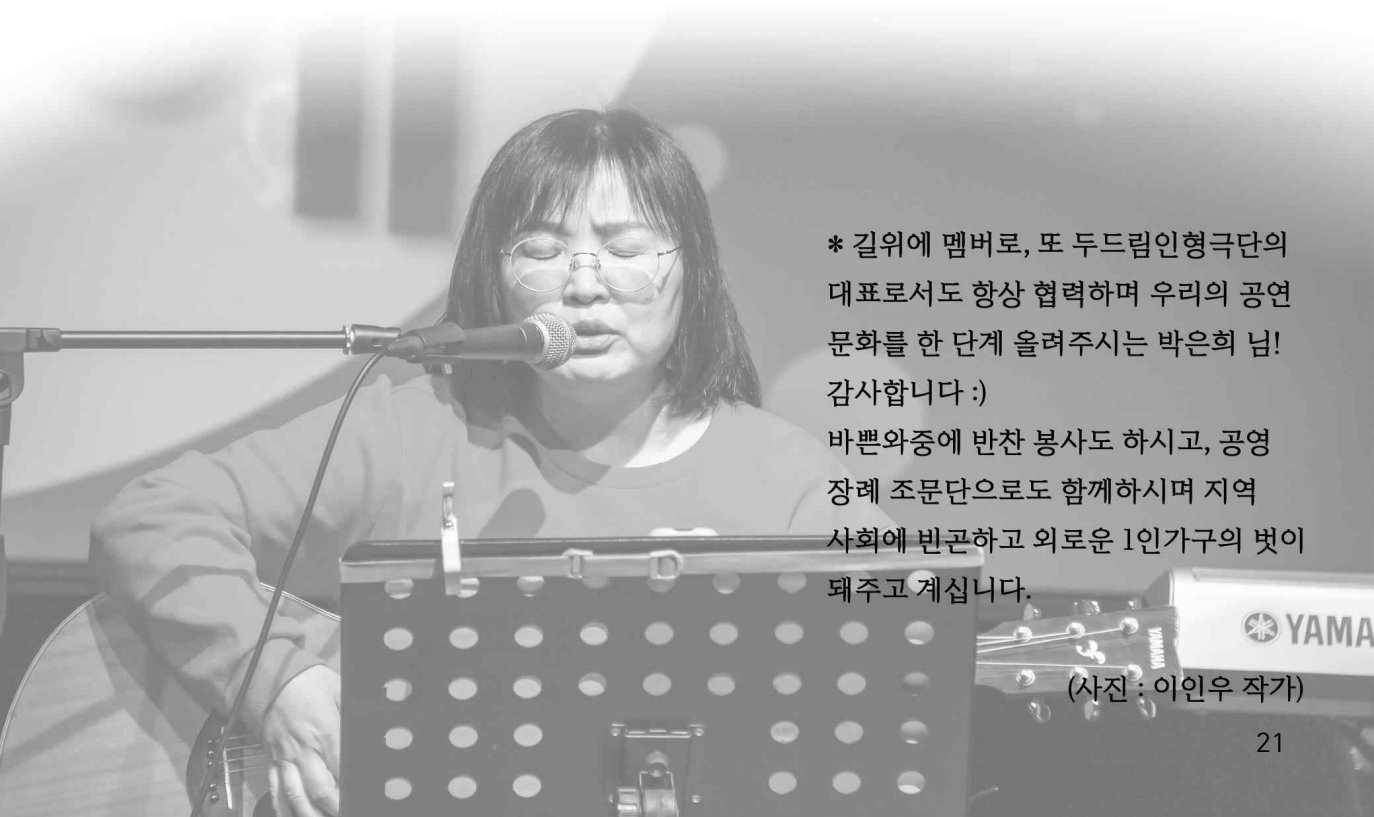
학창시절 노래패시절 참 열심히 민중을 위한 노래도 부르고 있었는데
"길위에"는 그 삶을 연장시켜 준 좁은길이였다.

사실 길위에 노래패는 크게 노래를 잘 하거나 뛰어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늘 길위에서 힘겹게 투쟁하는 동지들의 힘이 되어주는 소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환한 빛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한 줍 소금 뿌리고 투쟁을 다짐하는 노래가 아닌가 한다.

노래패를 시작하고 어떻게하면 즐겁게 노래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도 하고
현장을 늘 지켜준 길위에 멤버들 항상 고맙고 늘 건강하기를 기원해 본다.

우리의 노래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박은희 님〉



* 길위에 멤버로, 또 두드림인형극단의 대표로서도 항상 협력하며 우리의 공연 문화를 한 단계 올려주시는 박은희 님! 감사합니다 :)
바쁘와중에 반찬 봉사도 하시고, 공영 장례 조문단으로도 함께하시며 지역 사회에 빈곤하고 외로운 1인가구의 벗이 돼주고 계십니다.

(사진 : 이인우 작가)

빈민해방운동가

윤웅태 동지 10주기 추모제

- 박일수 열사 22주기 묘역참배와 합동으로 진행
- 일시 | 2026년 2월 7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솔밭산열사묘역(하북면 삼덕로 288)
- 문의 | 010-5135-7957

- **윤웅태 동지 10주기 기념 토론회(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일시 | 2026년 2월 7일(토) 오후 3시

장소 | 공간달품(초량로53, 1층)

연대문화제

인생이 사랑과

함께 싸우자!

윤웅태동지정신계승사업회

부산반빈곤센터 2025년 11월 ~ 12월 회계보고

			11월	12월	
수입	이월금	이월금	1,801,051	4,733,188	
	회비	현금	236,500	350,320	
		CMS	1,595,310	1,695,845	
	후원금	후원금	1,109,591	280,000	
	재정사업	재정사업	2,490,000	3,245,000	
	교육사업	교육사업	85,000	0	
	기타수입	공공요금정산	0	108,799	
		기타수입	81	3,649	
공모사업	공모사업	0	0		
수입합계			7,317,533	10,416,801	
지출	이연비	임대료	사무실임대료	300,000	300,000
		공공요금	공공요금	41,090	62,510
		비품비	비품비	6,450	203,000
		소모품비	소모품비	0	0
		교육비	활동가교육비	0	0
		인건비	활동비	1,900,000	1,900,000
			보험료	16,000	16,000
			상여금	0	0
			퇴직금적립	190,300	190,300
		CMS사용료	CMS사용료	57,605	57,605
	소 계			2,511,445	2,729,415
	사업비	연대사업비	분담금등	0	100,000
		선전인쇄비	소식지등	9,600	0
		조직화사업비	조직화사업비	0	50,000
		회원사업비	회원사업비	0	55,000
		회의비	회의비	63,300	0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	0	0
		재정사업비	달달한품앗이	0	542,800
		출장비	출장비	0	0
		은행수수료	은행수수료	0	0
예비비		예비비	0	0	
공모사업비		공모사업비	0	0	
소 계			72,900	747,800	
지출합계			2,584,345	3,477,215	
잔액			4,733,188	6,939,586	

* 12월까지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별도회계로 처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기헌 활동가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부산반빈곤센터 활동일지

[11월]

- 1일 단편영화 '시간이 없다'팀 촬영(15시, 사상 숙소)
- 3일 채비학교2(19시, 달품)
- 3, 5, 7일 '만남'팀 편집(11시, 달품)
- 4일 25-4차 운영위원회(19시, 텔레그램화상채팅)
- 8일 영화숙재생원 피해사망자 위령제
(11시, 사하경찰서)
- 9일 부산다큐필름페스티벌 '오, 발렌타인' 단체관람
(19시, 무사이극장)
- 10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12일 강제단속 피해사망자 고 푸안 님 추모미사
(12시, 출입국사무소 앞)
'만남'팀 촬영 종파티(19시, 양정동 식당)
- 13일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방문(15:30)
서로배움실천팀 모임(19시, 거제동 식당)
- 14일 사회과학세미나 '노동자평의회' 함께읽기
(19시, 달품)
- 17일 공영장례 연구팀 회의(13시, 영화숙사무실)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19일 공영장례 조문단 1~4기 후속모임
&단편영화 제작단 내부시사회(19시, 달품)
- 20일 편집팀 회의(19시, 달품)
- 23일 부산독립영화제 '유령' 단체관람
(13시, 영화의전당)
- 25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26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국가손배소 방청
(10시, 부산지방법원)
서면시장 문화제 참석
- 27일 정인호 님 장례 조문 및 화장
(13:40, 부산영락공원)

[12월]

- 2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4일 2025달품콘서트(19시, 민주공원 소극장)
- 8일 내미는마음 모임
공모사업 회의(12시, 동구청)
- 9일 임지훈 님 회원탐방(19시, 달품)
- 19일 사회과학세미나&와인파티(19시, 달품)
- 20일 서로배움실천팀 모임(16시, 시청 인근 식당)
- 22일 공영장례 연구팀 회의(11:30, 전포동 식당)
공영장례 조문단 후속모임(19시, 달품)
- 23일 420부산공투단 집회(15시, 시청)
편집팀 글쓰기모임(19:30, 텔레그램 화상채팅)
- 24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국가손배소 방청
(14:30, 부산지방법원)
서면시장 문화제 노래연대
- 30일 길위에 송년회(19시, 대신동 식당)



사진: 정남준 님



사진: 이인우 님



부산반빈곤센터는 2010년 4월 1일 발족,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반빈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 관련 상담 및 교육 ▲ 불안정노동철폐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활동
 - ▲ 공영장례 등 민중복지 쟁취 운동 ▲ 인권현안 연대사업 ▲ 1017빈곤철폐의날 기획사업
 - ▲ 새로운 교육실천을 위한 세미나 ▲ 노래패 길위에 등 소모임을 합니다.
-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발행 : 부산반빈곤센터 | 편집위원장 : 김원석 | 편집위원 : 김민수, 전소현, 최고운
 부산 동구 초량로53 | cafe.daum.net/2010bac | bapc@daum.net | 051)645-0418

부산반빈곤센터 2025 사명·비전

기본적인 삶의 권리

서로 돕는 평등 공동체

주체적인 연대

생동감 넘치는 조직의 힘으로 빈곤과 차별의 벽을 넘는다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함께한다

- 회원이 200명이 된다
- 매월 1회 회원정기모임을 통해 회원 목구를 파악한다.
- 모든 회원들이 사명, 비전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 역할이 분명한 운영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 운영위원들이 연 4회이상 별도로 마련한 조직강화의 시간을 가진다.

서로 배우고 모두 성장한다

-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월 1회 회원교육을 진행한다.
- 전문성 있는 팀 활동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강사를 배출한다.
- 1인가구, 주거빈곤 당사자 조직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연결한다

- 공간달품이 부산의 민중의집이 된다.
- 연대를 도모하는 달품콘서트를 개최한다.
- 회원들과 함께 월 1회이상 연대 활동을 한다
- 우호적인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긴밀하게 연대한다.
- 빈곤과 차별을 강화하는 법제도 제개정 운동을 한다.

일정안내

운용태 동지 10주기 추모제 및 토론회

2월 7일(토) 11시, 솔밭산열사묘역 / 오후 3시, 공간달품

* 솔밭산 차량동행 필요 시 연락주세요!

2026 정기총회

2월 27일(금) 저녁 7시, 공간달품

인원파악을 위해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bit.ly/bapc2026

회 원 가 입

bit.ly/bapc2017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bapc0401
홈페이지 bapc.kr

후 원 계 좌

부산은행 101-2043-6389-04 (부산반빈곤센터)